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군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헌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주간충헌] 신문사 소석관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내일부터 고난주간

오락 삼가고 회개와 경건생활을
금요일 하루는 금식하기로
헌금은 「우간다」 고아 구제비로 사용

내일부터 전세계 교회가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사순절이 끝나면 곧 종려주일을 지키고 성주간으로 이어지며, 부활절 전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한주간을 고난주간, 혹은 성주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 주간엔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최후 한 주간의 행적으로 따라 갈보리의 슬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는 행사가 갖는다.

초기 기독교회는 이 기간동안 저녁만 먹되 우유와 생선과 계란을 먹지 않았고, 오락을 금지하고, 결혼식이나 생일 잔치를 금지하고 죄인의 처형도 정지하였다.

축제를 금하고 자선을 베풀고, 평소보다 종교적 행사를 행하면서 회개의 절기로 지켰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하루를 전교인이 금식기로 했으며, 금식에서 나온 헌금은 「우간다」 고아재단에 보내기로 교회가 방침을 세웠다.

또 본교회에서는 24일(금요일) 오후 8시 10시까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교역자·장로 기도회 성향
기도운동을 확산키로

교역자·장로 연석기도회가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 충헌기도원에서 가졌다.

74명의 교역자·장로가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1부 예배, 2부 각위원회 사업 방향소개와 기도 제3부 주례별 기도회 등으로 진행했다.

1부 예배에서 이종윤위원장목사는 「2천년대를 향한 충헌교회」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영성 개발,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교회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도운동이 확산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개교회주의를 탈피한 은혜중심의 교회가 될 것」을 힘주어 설교했다.

새가정부 간담회 개최
14교구 여교역자 초청

새가정부(부장/박승준장로)는 교회학교 1만명 출석목표에 따른 각부 부흥성장의 일환으로 '회원 300명 대게 하소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중 3월19일(주일) 오후3시 소석관203호실에서 14개 교구 여교역자 전원을 초청 새가정부 부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새가정부는 결혼 3년미만의 회원들의 많은 출석을 바라고 있다.

교사양성부교육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연구원은 제30기 교사양성부 교육을 지난 3월5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소석관 301호실에서 강의하고 있다.

매주일 오후 12시50분부터 3시10분까지 진행되는 교사양성부 교육의 과목 및 강의 일자,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자각론(3월5일/윤용규목사) △기독교교육(3월12, 19, 26일/김성운전도사) △성경공부 방법(4월2, 9, 16일/이조웅전도사) △칼빈주의(4월23, 30일/이원길목사) △인성 발달과 상담(5월7, 14, 21일/김연이전도사) △교회음악(5월28일, 6월4, 11일/김윤경교수) △율법과 복음(6월18일/김익경목사) △성경의 영감성과 필요성(3월5, 12일/윤영탁목사) △구원의 서정(3월19, 26일, 4월2일/김영구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4월9, 16일/김장성전도사) △십자가의 도(4월23일/김동열목사) △천국과 지옥(4월30일, 5월7일/김준태목사) △성령의 은사와 열매(5월14, 21, 28일/이양우목사) △예배의 의미(6월4일/김학진목사) △교회론(6월11, 18일/김장근목사)



▲ 매주 금요일 새벽(6시30분~7시30분)마다 남성도 대상으로 아담반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다(첫번째 모임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는 이종윤위원장목사)



▲ 지난 3월14일 충헌기도원에서 교역자·장로 연석 기도회가 있었다(관련기사 1면 참조)

카메라초점

본교회 협동목사 8명 초빙

보수진영 신학대학 학장 및 신학자

윤영탁, 신복윤, 신내리, 이진태, 박영희, 전호진, 테리파이, 정규남목사



〈윤영탁목사〉

〈신복윤목사〉

〈신내리목사〉

〈이진태목사〉

〈박영희목사〉

〈전호진목사〉

〈테리파이목사〉

〈정규남목사〉

교회는 새로이 협동목사 8명을 초빙하고 지난 13일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충헌교회 장상과 더불어 양적부흥에 대처할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교계의 신학자이며 석학인 보수진영 신학대학의 학장들과 권교사 등이 2년 계약으로 특별초빙되었다.

13일 오전 7시30분 만남식당에서 당회산하 각위원장들과의 조찬 및 상견례가 있은 후 위임목사실에서 충헌교회 협동목사로 서약할 것을 다짐하는 본인들의 청빙서약을 자필 서신

으로 하락하고 위임목사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예번 청빙된 협동목사들의 명단과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무순임)

- ▲윤영탁목사(미국 카버넌트 신학대학원 졸업/구약신학/합동신학원 교무부장)
- ▲신복윤목사(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졸업/조직신학/합동신학원 원장)
- ▲신내리목사(미국 웨이스신학대학원 졸업/선교학/W.C.A 한국선교부 대표)
- ▲이진태목사(브랜디스대학 대학원졸

업/구약신학/개혁신학교 교장)

- ▲박영희목사(미국 샌트루이스대학교 대학원 졸업/신약신학/현재 총신대학 학장)
- ▲전호진목사(미국 풀러신학교 대학원 졸업/선교학/고신대학 학장)
- ▲테리파이목사(선교학/CMF 한국선교부 대표)
- ▲정규남목사(미국 드루 대학교대학원 졸업/구약신학/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학장 직무대행)

지 상 강 단

본문 마가복음 15장 16~32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의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학대와 희롱과 고초를 참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게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절대순종을 뜻하며 온 인류의 죄를 속죄케 위한 위대한 구속사역의 승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을 뜻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속죄의 구원을 선언하심을 뜻합니다.

1. 인류의 범죄

고난의 원인은 인류의 범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앞에 정계를 받았습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든가 많은 불행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에덴동산에서 살았습

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는 하루 아침에 저주와 고난과 불행의 길에 들어 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정계가 따르고 저주가 따르고 불행이 따르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수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인간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와 나음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인류의 지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심은 세계의 평화를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 복음전파에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분부인 복음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속죄함받고 구원받은 세계를 위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 고난의 유익

고난의 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사역 완성 축복 · 평화 · 치유주심을 깊이 되새기자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때문임을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믿는 자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온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이죄의 댓가는 고난과 저주와 불행뿐인 것입니다. 이 큰죄악을 어찌 우리 인류는 감당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시편 119편 65절에서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의 불행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당하고나서 비로써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된 것은 매우 비극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욱 불행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괴로하였으며 말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세마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매를 맞고 터지고, 더맞고 터져도 모르는 것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맞지 않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맞고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문제는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또 당하고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딱한 것입니다.

수난주간을 당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원죄와 오늘날 우리의 범죄하는 자범죄와, 온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의 대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길을 열었고, 오늘날 만백성의 주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평화와 치유를 주시는 것을 깊이 되새기며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 열 (목사 · 제9교구지도)

제1학기 충현살롬 경로대학

오는 4월13일(목) 개강예배

교육위원회(위원장/오태희장로) 산하특수교육부인 충현 살롬 경로대학(학장:송기홍장로)이 89년도 제1학기 교육을 오는 4월13일 개강기로 했다.

70세 이상의 남 · 여 신자 및 불신자(교회당 인근 지역 거주자)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동 경로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30분 부터 오후4시까지 예배, 교육, 식사, 특별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특별 활동 시간에는 음악연습과 노래 및 장기 경연대회, 살롬 백일장(불글씨, 시, 글짓기), 다과회를 통한 교제의 시간이 있다.

오는 6월 29일까지 제1학기가 종강되는 살롬경로대학의 수업료는 5천원이며, 주요 강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강예배 및 입학식(이종윤목사) ▲천국 시민의 자격(이종윤목사) ▲노년의 신앙생활(김학진목사) ▲구원의 확신(김익경목사) ▲영생과 죽음(윤용규목사) ▲평생교육의 필요성(김창인목사)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김영구목사) ▲노인의 보건(조인순권사) ▲노인병과 민간요법(홍문화서울대 명예교수) ▲북한의 노인생활(김만철) ▲그리스도인의 전도생활(박영진 CBS 선교부장)

한편 경로대학은 부감 및 교사를 임명했다.

▲부감/주원홍집사(남), 김용숙집사(여)
▲교사/남)강봉수, 김여순, 박인건, 박상준, 채수경, 오인근, 한정선집사(여)유금열, 김순

동, 박윤석, 이종숙, 김용섭, 김명숙, 이도영권사, 이복희, 이미재, 한은주, 김효정 집사

병원 40군데에 전도지 배포
소망부 전도요원들

소망부에 소속된 11명의 전도요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서울

시내 병원 40군데에 전도지 배포와 주간충현, 기타 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70세 이상 되는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전개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남북통일과 북한선교 세미나 개최

3월23일 오전10시 갈릴리홀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남북통일과 북한선교 세미나가 오는 3월 23일(목) 오전10시부터 오후5시50분까지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회장/김준곤목사)가 주최하고, 충현교회 세계선교회(회장/이종윤목사)가 주관하는 동 세미나에서는 개회예배, 발제와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회와 민족의 화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모으는데 겸허한 기여가 되기를 바램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통일정책」을 평가하고, 「한국교회의 통일론」과 북한의 주체사상과 종교정책, 그리고 「북한 선교의 가능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진단하기 위한 발제와 이와 대치되는 반대의견을 피차 개진하면서 객관화된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 및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손봉호(서울대교수) ▲양호민(정치평론가) ▲김명학(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 ▲홍성현(제3세계 연구소 소장) ▲이성배(한국아주문화중심 총무) ▲주재용(한신대교수) ▲이종윤(충현교회 위임목사) ▲김창순(북한연구소 소장)

외국인 유학생 초청집회 갖기로

3월 28일 오후7시 갈릴리홀에서

예배위원회(위원장김기정 장로)는한국내의 외국인 유학 학생들에 대한 전도를 목적으로 초청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는 3월 28일(화) 오후7시부터 갈릴리홀과 교회식당에서 개최될 동 초청집회에는 약 250여명이 참가 대상이 된다.

사랑의집 건립추진위 위원6명 임명

지난 2월 정기당회(3월2일 오후7시)에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추진위원 6명을 임명했다.

임명된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병식장로, 이웅선장로, 이태규장로, 김차생장로, 박철훈장로, 오정현장로.

고등부 초청전도집회 4월9일 오후1시로 변경

본보 제2호(1989년3월11일자) 제3면 머리기사로 게재된 「미래 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 4월 9일 오후3시30분은 오후 1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2부 주최
춘계 심포지움

지상중계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제1일

개인 경건생활의 방향

정삼지(목사·제자교회 시무)



한국교회 30년대 후반까지 경건생활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80년대에 들어 성경 공부와 Q.T.(Quiet Time)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경건생활을 발전시켰다. Q.T는 이제 선교단체나 대학생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파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T의 약점으로 기도생활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적될 수 있으나, 진정한 Q.T는 말씀과 기도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Q.T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앙연륜이 깊은 사람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양분된 양상을 띠고 있다. 경건생활을 경건주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거룩(성결)의 개념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이탈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습성에 젖어 있다. 그 이유는 영적미숙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의 구체적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루 아침의 Q.T는 하루의 모든 흐름을 지정해주며 무엇을 하든지 아침의 Q.T와 맥을 같이 함으로써 얻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Q.T는 새벽 기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새벽 기도와 접목시켜야 한다.

Q.T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는다. 여기에서 바울형의 디모테형으로 분류되는데, 바울형은 도중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우이며, 디모테형은 어릴적부터 성경을 배워가며 비록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경우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극적사건이 없었던 디모테를 제자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났다는 사실이다.

「만남」이후로 중요한 것은 「알아감」(요일 1:3)이다. 많은 신자들이 참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의미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알아감」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있다해도 관념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알 뿐,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삶이다. 삶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Q.T는 경건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본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각종 신앙적 연구와 배움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곳에 역동성(Dynamic)이 상실되는 것은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Q.T는 우리들에게 지식과 삶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요소가 된다.

Q.T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모양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주었다. 그들의 경건의 노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었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Q.T의 궁극적 결과는 기쁨충만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위적 노력으로 기쁨을 만들거나 기쁨의 원동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해하는 데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번뇌의 삶이 아니다. 고민이 있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된 고민인 것이다.

경건의 지속적 훈련을 위해서도 경건생활이 필요하다. 경건의 시간이 경건한 삶이 된다. 만약 30분간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다면 24시간의 경건한 삶으로 연장시키시오. 경건생활이 삶의 합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시오. Q.T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절대로 그 방법을 도식화하지 마시오. 방법론적으로 Q.T에 접근하지 마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성품을 공히 발견하고, 아버지 같은 너그러우심에 안기우고 안식하는 측면을 발견하며 동시

장소적 사상적 개념을 포함하며 또한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둔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본래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떠나도록요 청반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인간상호간의 관계(신자, 불신자 포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경에는 공동, 공동체라는 용어와 함께 모임(집회, 회중)과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세 단어는 매우 함축적으로 상호보완되는 관계를 이룬다.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한정적인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임의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를 뜻한다. 또한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는 결코 아무런 상호관계 없이 고집자족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호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하나의 포괄적 단체임을 뜻한다. 「공동체」란 뜻의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추상적인 조직기능뿐 아니라 특정한

며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배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개인 주의의 현상이며 그 뿌리는 죄이다(마 25:14, 11:2)

4. 생명력 회복의 구체적 방안은?

1) 관계의 재정립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연구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기도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생명의 주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공동체는 내가 형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형제가 내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서로에게 귀속되고, 이 몸속에서 각 지체는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공동체 본질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로 모이는 출대와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는 두 출대를 축으로 회전해야 한다. 나에게로 오라 즉 모이는 공동체요, 만방으로 가라 즉 흩어지는 공동체이다. 현존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한 축으로만 회전하거나 한 축에만 머물 때 생명력을 곧 상실한다. 흩어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3) 비전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몰락한다. 단순히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상의 목표, 그것에 깊이 투신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할 때 존립이 가능해진다. 공동체에 뚜렷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표가 없을 때 그들 각자가 너무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곧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자칫히 상이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원하시는 바였다.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방황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주님이 오늘 내 곁에 함께 있게 하신 바로 옆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해결책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일치됨을 이루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인 내가 직위나 권위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고 한다면 참해하려는 노력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남을 나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그대로를 사랑할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시편 133편).



▲ 청년2부가 주최한 춘계 심포지움 광경

에 하나님의 공의와 엄위를 체험함으로써 성품을 조화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Q.T의 결론은 찬양과 고백이다. 이 시간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Q.T의 성공여부를 주관적 판단에 맡기지 말기를 바란다. Q.T는 개인의 공로가 될 수 없다. 끝으로 Q.T가 꾸준히 겸허한 자세로 지속될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할 것을 믿으며, 이 Q.T를 통하여 신앙의 유익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제2일

공동체 생명력 회복의 구체적 방안

육성식(목사·사랑의교회)

1. 공동체란 무엇인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동질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오고 있다. 이 집단은 같은

언어, 의식, 전통, 행동규범을 인정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강한 연대의식이 있었는데,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적의 공격 및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체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단체임을 의미한다.

2. 왜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의 근간과 뿌리, 출발점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강림부터이다. 즉,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각자의 심령에 임했을 때부터인 것이다. 다른 공동체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 공동체를 구성한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각자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분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양, 성격, 처지, 환경, 혈연, 지연,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영은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는 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기독교 공동체의 생명력이 왜 약화되어 가는가?

1) 생명을 소유한 자의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2) 조직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 조직이 앞서면 법, 행정, 직위, 권위가 전면에 세게 되어 공동체의 속성이 약화된다.

3) 개인주의 영향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이

장로수상 신앙과 미술



이병학

(장로·실로암한양대 대장)

신학을 전공하고 그림을 그리는 장로라고 주변에서 성화를 그리라는 주문이 많다. 그때마다 그들이 요구하는 성화가 신학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형태의 형상이나 성상을 그리는 것은 성스러운, 곧 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출 20:3-5, 신 4:13-17).

그러나 8세기와 9세기 성상화에 대한 논쟁은 예루살렘에서 성상숭배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고 성상화는 주님의 순수한 인간성을 설교해 주는 것으로 성상에 대한 참배와 숭배를 허용하였으며, 우상숭배까지 정당화시켰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종교개혁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칼빈주의 예배는 완전히 형상을 제거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세속적인 회화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까지

도 개혁교회에서는 형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장식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성상화를 거부한다 해도 성경 자체의 이미지를 보다 더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해 성상화는 요구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신비 곧 언어형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과 사진을 반대하고 우상타파주의자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림을 만든다. 형상이 없다는 기준위에 한 개혁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이 기준은 바로 그 교회의 형상, 곧 이미지가 된다. 치장되지 않은 벽이나 중앙의 설교대도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신학적 관심은 주변의 문제들도 아니고, 예배상의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교리적 의미에서 성상화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술은 몸과 마음의 보이지 않는 합일, 이른바 全人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예술가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회화나 조각, 건축, 연극, 무용 등으로 묘사되고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성상화는 인물묘사뿐 아니라 풍경화나 색과 형태의 조화를 통해 표현의 폭을 현없이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기관소개③

전도위원회

교회의 3대 목표중 하나인 「만민에게 복음 전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전도위원회이다.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종성장로)는 89년도 표어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로 정하고 각 분야별로 전도기획, 지도,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의 조직은 전도부, 문화부의 2개의 제직회 부서와 남, 여전도회 고문장로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메스컴전도를 비롯한 문서전도, 농어촌전도, 산업전도, 학원전도, 군경전도, 도시전도, 특수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부 산하의 메스컴 전도에서는 기독교방송을 통한 위임목사 설교가 매주 토요일 실시 중에 있고,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순례자」란 컬럼이 주2회에 게재되고 있다. 앞으로 K.B.S. M.B.C.TV 채널을 통한 특별방송전도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고, 교계 주간신문을 이용한 전도활동, 그리고 대중전도활동의 일환으로 강남역과 역삼역 두 곳에 있는 광고판을 최대한 활용토록 준비중에 있다.

또 문서전도부에서는 교회안내를 겸한 전도지 발행과, 성서공회 발행 「전도지」를 활용하

1권씩을 선물하는 일과, 교단소속 군복을 위한 여름수련회 및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고, 군복음화 후원회 지원사업과 군종사병훈련, 군부대 위문 및 전도집회 등을 실시할 계획을 짜놓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전도활동으로 춘천교도소와 청송감호소 두 곳에 여전도사각 1명씩 선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활동으로 청소년 복지원을 선정, 매월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도시전도부는 본교회 청년부 노방전도팀을 매주 교육하고, 전도활동 독려를 위해 연말에 모범전도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일, 그리고 본교회 성도중 개입하는 가정을 위해 전도용 거울선물, 노방전도사 초청하여 위로하고 교육훈련 등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전도부는 금년 10월 예정으로 총동원전도를 계획 중이며, 새신자를 위한 교회안내용 비디오제작, 70인 전도요원 훈련(전후반기로), 교인건강위안 신앙강좌, 그리고 무의촌 무료진료 등을 실시키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도위원장 윤종성장로는 「금년엔 이미 법조인 선교회가 창립되었고, 계속해서 초·중·고등 교사 선교회와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선교회 등을 창립하겠다」고 밝히고, 특별히 「낙도선교와 무의촌지역 무료진료와 전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방대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진키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완료했다.

초·중·고교 교사선교회 창립키로 낙도선교와 무의촌에 진료팀 파송



▲ 전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일방전도지를 제작키로 했으며, 군복들에게 신앙잡지 보내기 운동, 설교태이프 보급, 그리고 예술인 선교회(미술, 음악, 예술)를 창립키 위해 준비중에 있다.

전도부 산하 농어촌 전도부에서는 농어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교육하는 일을 년1회 시행키로 했으며, 지교회, 지원교회, 위탁교회 등을 관리하고, 농어촌에 여름방학을 이용, 특별전도대를 10개팀으로 구성하여 파송토록 했으며, 낙도지역에 가장 어려운 교회 두 곳을 선정하여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일도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산업전도부는 직장전도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중이고, 학원전도부에서는 우리 충현교회와 가까운 거리의 남여 중·고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교목」을 지원하는 일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군경전도부는 군대 입대자에게 성경

△위원장/윤종성장로, △지도/이양우목사, △부위원장/강은원장로, △서기/김종구장로, △회계/박문태집사, △위원/오정수장로, 김원선장로, 정하우장로, △전도부 부장/강은원장로, ①농어촌담당차장/강협장로, 박영업권사, ②도시담당차장/김정태집사, 염숙현권사, ③산업전도담당차장/김성용집사, 권유행권사, ④군경전도담당차장/권명옥집사, 이수덕권사, ⑤학원전도담당차장/이해숙권사, 임옥순권사, ⑥특수전도담당차장/박상준집사, 유호순집사, △문화부장/오정수장로, ①메스컴담당차장/박성명집사, 전성자집사, ②문서담당차장/홍경숙집사, 김명자집사, ③예술담당차장/이태길집사, 조미경권사, ④체육담당차장/이종섭집사, 한영숙권사, △낙도전도회 고문/김원선장로, △여전도회 고문/정하우장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차량관리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일, 수요일만 되면 이김없이 교회로 오는 차량들을 관리하고 질서정연하게 안내하는 부서가 차량관리부이다.

약 35명의 이들 봉사팀은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통정리조, 주차정리조로 나뉘어 각자봉사위치에서 묵묵히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 그리고 일반 영업용 택시들의 교통정리까지 손수 맡아 안내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우리교회의 주차능력은 총 500대인데, 매주일 주차수는 약 1천700대로 밝혀졌다.

앞으로 교인숫자 증가로 인한 차량증폭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의 확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차량관리팀의 인원보강, 그리고 주차방법의 개선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차를 주차하려는 성도들의 교통문화의식(질서·순종)이 결여되어 있다고 실무자는 말하

주일 하나님말씀에 은혜입고 귀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텐데 일부이기는 하나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눈발을 찌뿌리게 하고, 언성과 감정이 폭발하여 성도들간의 교제에 틈이 생기는 예도 있다고 한다.

특히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교회중직을 맡은분)의 솔선수범이 아쉽다고 고충을 말하는 차량관리팀은 피차예의를 지키며 주차관리업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누구나 알아주지도 않는 힘들고 어려운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는 차량관리팀에 승용차를 끌고 교회당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가죽처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며, 모든 안전지사와 안내에 적극 협력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차량관리부에서는 차량폭주로 인한 교통마비와 주차능력 한계로 주차난 해결위한 인원 및 장비의 확보를 요망하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권장과도 전문인력 양성과 컴퓨터 주차 등 과학적인 주차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차원의 대책을 바라고 있다.

▲ 차량관리부 조직

부장/문홍구장로, 차장/허명호집사, 총무/김태영집사, 서기/서준식집사, 회계/추병창집

눈, 비 맞으며 헌신적 봉사활동 과학적인 주차관리 필요성 절감



고 있다.

차량관리팀의 직시를 따라 주차와 통행을 질서있게 지켜주면 교통체증이라든가, 거북한

사, 교통정리 제1조/손기현, 박원화, 김은석, 김진구집사, 교통정리 제2조/이성실집사, 김규중선생, 김운창집사, 어용열집사, 교통정리 제3조/채기봉, 한종구, 윤병조, 문광석집사, 교통정리 제4조/추병창, 김낙홍, 박호영, 이승구집사, 교통정리 제5조/서준식, 김종만, 유영석집사, 주차정리 제1조/배호남선생, 김영길집사, 김일교집사, 김영연선생, 주차정리 제2조/김봉중, 이순득집사, 장영환선생, 이교영집사, 주차정리 제3조/한만교, 손동기집사, 이홍결선생.